

트럼프, 이민단속 반대시위 “외적의 침공…LA 해방 하겠다”

美 최대 육군기지 방문…뉴섬 주지사에 “침입자의 도시점령 도와”

성조기 불태운 시위대에 “미국인 아니다…1년간 감옥 가야”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외적에 의한 침공’으로 규정,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도시가 외국의 적에 의해 침공당하고 정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평화·공공질서·국가 주권에 대한 전면적

인 공격”이라며 “외국 깃발을 든 폭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LA 시장은 무능하고, 말썽꾼과 선동가, 반란주의자를 고용했다”며 “그들은 연방법을 무효로 하려는 의도적 시도에 가담하고 있으며, 범죄 침입자들이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을 벌이는 연방 법집행관을 시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한 결정을 재차 옹호하면서

“수 세대에 걸친 육군 영웅들이 먼 땅에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나라가 침략과 제3세계 무법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LA 시위대가 벽돌과, 망치로 깎은 보도블록을 경찰에게 던지고 화염병으로 차량을 불태운다면서 이들을 아마추어가 아닌 방탄복과 얼굴 보호장비를 착용한 ‘전문 시위꾼’으로 묘사했다.

이어 “그들은 동물이다. 다른 나라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지만 성조기는 들고 다니지 않는다. 그들은 성조기를 단지 불사를 뿐”이라며 “성조기는 미국인이나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태운 게 아니다. 성조기를 태우는 사람은 1년간 감옥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만에 LA는 지구상

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에서 국제범죄조직과 범죄 네트워크가 통제하는 쓰레기 더미가 됐다”며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혼란, 기능 장애, 무질서를 초래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LA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깨끗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폭력을 진압하고 법과 질서를 즉시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7일이나 8일 동안 (주방위군 요청) 전화도 안하는 주지사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도시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로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착륙한 직후 취재진에게 “나는 평화를 보고싶을 뿐이다. 평화기가 있다면 우리는 떠날 것이지만,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곳에 머물 것”이라며 시위가 잠잠해질 때까지 군 병력을 계속 LA에 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그는 또 “군대가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군대는 매우 엄중한 무력이 될 것이다. 그들(시위대)은 돌아가는 게 나을 것이다. 일부는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앞선 연설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LA 시장이 전문 시위꾼을 돈을 주고 고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주지사나 시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돈을 줬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스트리아 총기사고 희생자 추모

10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내 중앙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中항모 2척, 서태평양서 첫 합동편대훈련

“특정국가 겨냥 아냐”…日 “동향 주시”

중국 해군 당국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처음으로 항공모함 합동 편대 훈련을 실시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1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해군 대변인 왕쉐명 대교(대령)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최근 중국 해군 랴오닝함과 산둥함 항모 편대가 서태평양 등 해역에서 훈련을 실시해 부대의 원해(遠海) 방위 및 연합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어 “이번 훈련은 연간 계획에 따라 조직된 정례 훈련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지속

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훈련은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2척이 서태평양에서 최초로 실시한 쌍항모 편대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앞서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항공모함의 항해를 최초로 확인했다는 NHK 등의 보도가 지난 9일 나온 가운데 나왔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가 지난 7일 미나미토리시마 남서쪽 300km EEZ 수역에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구축함 3대 등 중국 함선

4척이 항해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랴오닝함은 이튿날인 8일 미나미토리시마와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 사이 해역으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함재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훈련이 진행됐다.

지지통신은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미국령 괌을 잇는 제2도련선을 넘는 해역에서 활동한 것은 처음이라고도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중국 측에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지속해서 (중국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경계·감시 활동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머스크 “로보택시 서비스 오는 22일 출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오는 22일 로보(무인)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에 관해 묻는 이용자의 질문에 “잠정적으로 오는 22일이다. 우리는 안전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장의 라인 끝에서 고객 집까지 자율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는 오는 28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20일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수천 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이라며 “다음달에 오스틴에서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첫날에 1천대나 1만대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신중하지 않다. 그래서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 20대, 30대, 40대로 점차 늘려가면서 아마 몇 달 내 1천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같은 다른 도시들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오스틴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된다. 사람이 원격으로 감독하는 가운데 운행된다.

/연합뉴스

‘22년간 中스파이’ 대만 집권당 당직자 등 중형

대만 검찰이 20년 넘게 중국 스파이로 암약한 ‘침·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 당원과 당직자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타이베이 지검은 전란 천수이볜 총통 시절인 지난 2003년 중국을 사업차 방문했다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소속 정보요원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민진당 신베이시의원 보좌관에 대해 징역 30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가 대만에 돌아와 간첩 조직을 구축, 운영하면서 2017년 추모 전 민진당 대만 민주학원(당원교육기관) 부주임을 포섭한 후 2023년 태국 방콕과 2024년 마카오에서 중국 군사위원회 정보요원과 함께 접촉했다고 설

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스파이앱을 통한 기밀정보 제공 대가로 각각 60만7천500 대만달러(약 2억7천만원)와 22만6천944 대만달러(약 1억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씨는 우자오세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이 과거 외교부장을 역임할 때 보좌관을 맡았던 핵심 참모 하오 씨, 라이칭더 총통 사무실 전자문 우모 씨 등도 포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방국 사절 및 외국 방문단과의 대화 녹취록, 대만-미국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메커니즘, 우방국 단교와 관련한 대만의 비상 대응 조치 및 라이 총통이 부총통 시절 파라과이 방문 일정과 총통 선거 기간 일정 등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